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3. 대강절기간(Advent)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 투게더 중창단 모집

새해부터 주일예배때 함께 찬양할 중창단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재신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탄, 송년

12월 22일(주일) : 성탄축하예배 (25일 성탄절에는 따로 예배가 없습니다.)
12월 29일(주일) : 송년주일예배 (31일 송구영신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지난 주 (11/24)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938.93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4.12.1 (580호)

말씀의 빛을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
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영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1장 1-13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이렇게 기도하라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2월 8일(대강절 둘째)	12월 15일(대강절 셋째)
최빅토리아	강민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더 좋은 것

오늘 본문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흔히 교회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 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는 다 죽어가는 우리를 나타냅니다. 그때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칩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비난했던 사마리아인이 율법의 땅 유대 땅에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 내십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말해 줍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때에만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먹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죽도록 일만 한 여자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여자로 둘 중에 누가 진짜 믿는 것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이 마르다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이 뭔가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사모하는 자들을 보면서 게으르다고 평가하거나 아무것도 안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면서 너에게는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로 주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은 다 른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거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는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놓고 싶다고 놓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은혜를 입었기에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열심과 사모함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